

‘사축’을 거부하며; 성숙된 삶으로 이르는 길

‘사료’의 수단으로서의 ‘일’ 관점은 자신을 종속된 ‘사축’으로 남게 할 것이다. 만일 ‘일’이 자신의 성장과 자아실현의 도구가 되고, ‘일터’가 자신의 삶에서 모든 ‘가능성의 장(場)’이 된다면 우리는 가장 인간답고 성숙된 삶의 문턱에 한층 다가서게 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 젊은 작가에 의해서 소개된 ‘사축(社畜)’이란 말이 회자되며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다. ‘사축’이란 ‘회사’와 ‘가축’의 합성어로서, 회사에 길들여져 자신의 의사(意思)와 양심을 포기한 채로 노예화된 셀러리맨의 상태를 비꼬는 말이다. 매달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월급이라는 ‘사료’에 중독되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축화 되어가고 있는 일본사회 회사원들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사축’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반면사축’이 되기를 제안한다. 즉, 회사를 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울타리 안에서 끈질기게 존속하면서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회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 사회의 승리가 된다. ‘반면사축’에게는 함께 일하는 동료마저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용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문제는 저자가 제시한 생존해법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동의를 얻고, 찬반양론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씩씩하다.

하지만, 저자의 해법은 ‘사축’을 정의하기 위해서 본인이 근원적 과제로 제시한 ‘사료’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며, 동시에 ‘사축의 흉내를 내는 사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결국 사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자기모순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 이유는 역동적인 심리체계와 고차원적 의식, 그리고 변화무쌍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세계를 ‘동물’과 ‘사료’ 관계라는 지극히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인간연구에 평생을 바친 대표적 인본주의학자 매슬로(A. Maslow)는 인간이 여타 동물과 구분될 수 있는 구획기준은 결국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에게는 사랑, 신뢰, 도덕, 행복, 공유의식과 같은 가치체계가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제공하는 강력한 동기요인이다. 하지만 동물에게는 이러한 가치체계가 없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사료’ 이상의 무엇도 거추장스러운 뿐이다. 만일 우리가 ‘사료’만을 얻기 위해 ‘사축을 가장한 사축’으로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이 될 것이다.

어떤 동물도 스스로 일을 하는 종은 없다. 하지만 인간에게 ‘일’은 생존을 넘어 무엇인가를 향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삶의 도구이자 양태임이 분명하다. 에리히 프롬은 이것을 ‘적극적 자유’의 실현이라고 표현했다. ‘종속’과 ‘자유’의 관계 설정은 결국 자신의 존재이슈와 직결된다. ‘사료’의 수단으로서의 ‘일’ 관점은 자신을 종속된 ‘사축’으로 남게 할 것이다. 만일 ‘일’이 자신의 성장과 자아실현의 도구가 되고, ‘일터’가 자신의 삶에서 모든 ‘가능성의 장(場)’이 된다면 우리는 가장 인간답고 성숙된 삶의 문턱에 한층 다가서게 될 것이다.

Written by C.E.O James Roh(노상충)

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면서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삶은 없다. _ 소크라테스



James Roh

